4/30/23

설교 제목: 스가랴가 본 다섯 번째 환상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스가랴 4 장 1-14 절

(슥 4:1)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절관주] 왕상 19:5, 렘 31:26, 단 8:18

(슥 4:2)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슥 4:3)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슥 4:4)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슥 4:5)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슥 4:6)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절관주] 겔 37:14, 호 1:7

(슥 4:7)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절관주] 스 3:10, 시 118:22

(슥 4:8)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슥 4:9)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절관주] 스 3:8-10

(슥 4:10)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절관주] 느 4:2, 암 7:2

(슥 4:11)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절관주] 슥 4:3

(슥 4:12)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니

(슥 4:13)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슥 4:14)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절관주] 출 29:7, 삼상 16:1, 삼상 16:12, 삼상 16:13, 슥 3:1-7

본문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여덟 가지 환상 중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대 곁에서 기름을 공급해 주는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환상의 중심 인물이었고 이번 환상에서는 스룹바벨이 환상의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 해방령을 선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1 차 귀환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그후 성전 재건을 진두지휘 했던 인물들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고 스룹바벨은 바사(페르시아)가 유다 지역에 임명한 총독으로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없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왕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스가랴가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환상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던 천사가 다시 스가랴를 찾아와 깨웁니다.
잠자고 있던 스가랴를 깨웠다기 보다는 스가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동을 준 것입니다.

(슥 4:1)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천사가 스가랴에게 무엇이 보이냐고 묻습니다.

(슥 4:2)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슥 4:3)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는 환상 중에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등잔대 위에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었고 그 위에 심지가 놓인 일곱 등잔이 있었으며 그것들이 기름이 흘러 내리는 일곱 개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등잔대 양 옆으로 두 감람나무가 있어 일곱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잔대 꼭대기에 있는 그릇에 기름을 공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가랴가 알고 있던 과거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것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스가랴의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슥 4:4)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슥 4:5)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슥 4:6)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은 여호와의 영 곧 제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16 년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사역의 원리는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결정한 모든 사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자신의 의, 자신의 열정, 자신의 힘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 하고자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부합되는지를 먼저 살피고, 하나님께 그 사역을 내어드려 하나님의 영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환상은 순금 등잔대에 감람나무의 기름이 끊임없어 부어져 등잔대를 계속 타오르게 하듯이 성전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계속적으로 부어져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독려하게 함으로써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슥 4:7)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은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을 포함해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가리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는 것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것들이 큰 산과 같이 높고 클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평지와 같이 변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머릿돌'은 건축물이 완공될 때 완공 기념으로 세우는 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말은 제 2 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과거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못하지만 성전이 파괴된 지 70 여년 만에 제 2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참으로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됨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천사는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부터 마치는 일까지 모두 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 말을 전하는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슥 4:8)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슥 4:9)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BC 536 년 스룹바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여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고 그후 16 년간 방치했다가 BC 520 년 재개했으며 재개한지 약 4 년만인 BC 516 년 완성시켰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과 재림 사역을 통해 교회를 완성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슥 4:10)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짓고 있는 제 2 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거나 그것의 웅장함을 들어 익히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규모와 장엄함에 있어서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비아냥거렸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제 2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잘것없이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고 있던 어르신들이 제 2 성전의 초라한 기초석을 보고 대성 통곡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스 3:12)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들은 스룹바벨에 의해 재건되는 성전의 나중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옛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서 태어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의 볼품없고 초라한 겉모습을 보고 많은 제사장들과 왕족, 바리새인들이 그를 멸시하고 배척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성취하실 영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에 대해 비아냥거리며 멸시하던 자들과 달리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림줄'은 긴 줄에 납덩이 같은 물건을 달아 아래로 떨어뜨려 건물의 수직을 잡아주는 기구로 그것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유다의 총독으로서 성전 재건 공사를 총감독 할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공사가 미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완성될 것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 곧 모르심이 없으신 성령께서 그 일을 성사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일곱은 완전 수로 '일곱 눈'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가치를 알고, 그 진정한 영광을 내다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 순금 등잔대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스가랴가 이번에는 두 금관 옆에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감람나무'에 대해 반복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순금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지목하여 질문한 것은 성전 내부에 감람나무가 있을 수 없었고, 또 그 감람나무에서 계속 등잔대에 기름이 공급되는 신비한 현상에 대하여 깊은 호기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슥 4:11)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슥 4:12)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니

(슥 4:13)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슥 4:14)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두 감람 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가르킵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즉각 순종하려고 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감람나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십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며 왕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왕의 자리에 등극하셨습니다.

이 환상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 장차 나타날 완전한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세우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참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건물로 된 성전을 헐라고 하시며 자신이 참 성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 2: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 2:20)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요 2: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 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성전, 교회가 되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등잔에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듯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교회다움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